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



면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리모아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대학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 UCLA Royce Hall 전경, 사진=shutterstock

전공, 학비 부담, 학교의 명성 등 다양한 이유로 편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시기도 2학년을 물론 심지어 4학년 때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38%가 편입을 한다.

그런데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대학 편입학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의 대학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편입 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입 희망 학생 증가와 대학들의 적극적인 편입생 수용 정책에 따라 미국 대학생 10명 중 약 4명이 입학한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편입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명성이 있는) 대학, 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옮기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더 명성 있는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하기도 수월하고 당연히 몸값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 보조를 해 주는 대학이나 학비가 더 저렴한 대학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편입은 매년 1월과 9월에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입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 여부와 편입의 시기 즉, 언제 편입을 할 것인가이다. 이 계획

을 세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022년 9월 가을학기로 편입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내년 2-4월에 편입 원서 마감을 한다. 대학마다 그 마감이 다르다. 2023년 1월 학기 편입을 생각한다면 아직 시간이 많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편입 원서 마감이다. 1월 학기로 편입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원서 마감일이 11월 1일이다. 그러나 12월 1일 마감인 대학도 많다. 정확한 마감일은 꼭 편입희망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내년 9월 가을학기로 편입을 하려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된다. 가장 먼저 편입을 할 대상 대학을 찾아야 한다. 또 편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 성적이다. 만약 성적이 평균 3.0이하라면 좋은 대학으로의 편입은 힘들다. 에세이와 교수 추천서도 잘 준비해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정 보조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편입생에게도 재정 보조를 해 주는 대학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 1학년 신입생에게는 재정을 보조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편입생에게는 그런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홈페이지나 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재정 보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